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3월 17일 (제99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신성회복

최근 필리핀 세부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집에 심방을 했다. 가서 보니 그들의 형편은 우리나라 60년대와 흡사했다.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에, 비좁고 지저분하고, 더욱이 개, 고양이, 닭을 품에 안고 한 곳에서 뒹굴며 살고 있어 어디가 사람 사는 곳이고, 어디가 우리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고양이가 잡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들은 이미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 있어서 사람이 주는 먹이나 먹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사냥해서 먹고 살도록 그 안에 야성을 주셨건만, 사람 손에 길들여 사람이 주는 것에 의존하고 있으니 본성을 잃은 것이다. 사람은 또 어떤가! 동물과 섞여 살고 낙후된 곳에서 살다 보니 사람으로서의 성품, 도덕이나 예의 같은 인성(人性)을 잃은 채 살고 있었다. 천진난만한 구석은 있으나 도덕이나 예의 없이 되는 대로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도 잃은 것이 있다. 바로 신성(神性)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 같이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같이 불가능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잃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야성을 잃은 고양이와 무엇이 다를까.

사람 손에 길들여진 고양이가 다시 야성을 회복하려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자.

닭은꼴은 시간과 정비레한다

아카(Akha)족의 생활을 보니 꼭 우리 어린 시절 시골마을에서 경험했던 그 정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목사님이 오셨다고 흑돼지를 잡고 닭을 잡아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솥불을 피우며 동네사람들이 모여 갈질을 하고 먹을 것을 계속 내오며 권한 인정이가 그 시절 우리네 모습과 동일했다. 집회 당일 아침에는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했다. 힘들고 번거로우니 도시락 업체에 맡기자는 황 장로의 말에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그러면 양이 적어서 안 된다고 직접 밥을 하고 고기를 구워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다.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에 갔을 때는 그들의 가난한 삶에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이곳은 모든 것이 풍부해보였고, 가슴 또한 따뜻한 그들의 인정을 듬뿍 느낄 수

목사는 이곳에서 고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학교를 통해 아카족 목회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목사님의 첫 방문에 아제 목사는 신이 나서 학교와 기숙사 등을 소개했다. 무엇보다 부모 없는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히며 교육시키는 아제 목사 부부의 헌신은 정말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고아들의 얼굴이 너무도 해맑아 가슴이 뭉클했다. 목사님과 우리 일행은 찬양시간부터 그들과 함께 춤추고 찬양하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사전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의자 200개를 제공하였고, 염상섭 장로가 보낸 볼펜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세미나를 진행함에 앞서 자리가 어수선하자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세미나가 지도자 교육이라 들

었다면 오래 함께 있으면 됩니다. 닭은꼴은 시간과 정비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제 목사를 닭고 싶으면 아제 목사와 오래 있으면 됩니다. 오래 함께 있으면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제 목사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미국인 아내와 살기 때문입니다. 오래 같이 살다보니 아카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두터마(안녕하세요), 그렁흐마(감사합니다)'라고 따라하니 아카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고,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닮아 능력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방하라는 것이 하나님



태국 치앙라이 아카족 리더세미나

있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떠나를 때는 작별의 아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카족의 살가운 정을 오래 기억할 것 같다. 목사님은 연 3월 예배를 인도하시느라 3일 내내 숙소에 틀어박혀 기도예 전무하셨다. 집회 기간 동안이면 오로지 골방에서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목사님의 모습은 늘 향구여일하다. 그동안 그 많은 집회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기도 하다.

아제(Aje) 목사가 운영하는 아카복지재단(Akha Outreach Foundation) 대강당에서 이틀간 세미나와 집회가 진행되었다. 아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먼저 자리부터 정돈하고 조용히 강의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남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부터 다들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끌 수 없습니다. 계속 소란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이크를 놓고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아제 목사의 통역이 나오자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돈하며 자세를 가다듬었다. 세미나는 영어, 아카어 3자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은 제2의 창조입니다. 누군가를 닭고

의 말씀입니다." 아제 목사는 목사님을 닭고 싶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 멘토를 달라고 기도했다며 목사님을 자신의 영적 멘토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아제 목사에게 아카족을 넘어 태국 전체를, 나아가 동남아시아 전체를 복음화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라고 격려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닭느냐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사후세계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카족 고아원생들



도시락을 손수 준비하는 아카예수중심교회 성도들



우리 교단이 아제 목사에게 제공한 의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민13:30~14:10)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왜 우리는 대업을 꿈꾸지 못하고, 무슨 일에도 불가능을 먼저 선언하고, 도전하는 것에 겁을 먹고 두려워할까요?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주제에 뭘 해?’, ‘배우지도 못한 내가 이걸 어떡해?’, ‘가진 것 없는 내가?’ 이어서 못한다고 단정하고,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더욱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한계를 느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보리떡을 강령할 때 성령까지 주시는 통 큰 분이시기에 더욱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주눅 들고, 인간의 한계를 느껴 낙담하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늙어가는 자신과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보자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닌 여인에게서 자식도 봤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답답하셨지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좋지 않아 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본 하늘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보는 순간 ‘아차!’ 했습니다. 늙은 자신을 봤던 것을 회개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얻어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그에게 ‘네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산 자신은 낡은 옷과 헤어진 신발, 닳을 대로 닳아 반질반질한 지팡이가 전부인 너무나 보잘 것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출4:13)라며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1:31)고 했습니다. 처녀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늙은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져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깨달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명에 따라 각 지파에서 차출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똑같이 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을 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내보였는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민13:33), 즉 자신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보니 네피림의 후예에 비해 작고 턱없이 약해 보였

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14:9).

여러분, 나를 보면 한계가 그어집니다. 잘나봐야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어나 한

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 대해 분개하며 맞싸

우고 할 때 그의 말형이 화를 내며 뭐라 했습니까? “네 양은 어디에 두고 여기 와서 난리냐? 얼른 집이나 가라.”(삼상17:28)고 했습니다. 다윗을 막넛동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주머니에 넣은 물뭇돌 다섯 개를 다 쓰지 않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지혜가 없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즉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 곧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빌2:13)라고 말씀하심으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고 고백했고, 저 역시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꿈은 크게 이상을 높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겠다고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생각하사 그의 집에 유하셨고, 눈을 뜨겠다고 달려든 바디매오의 소원도 이뤄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마11:12).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침노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시대 목사가 교회 부흥의 일환으로 교구마다, 구역마다 배가(倍加) 운동을 지시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장이나 구역장 중 더러는 ‘나는 못 한다. 평생에 배가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며 뒤로 자빠진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보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주위의 긍정적인 사람들이 돕지만, ‘못한다’고 선언하면 ‘열씨구냐’하고 악한 것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위에 헤쳐모여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배웠습니다(히11:1).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왕 바랄 것이 라면 큰 것을 바라십시오.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시81:10).

어차피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취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일, 큰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작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다 일반입니다. 그러니 이왕 구하는 것, 큰 것을 구하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의 일을 구하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내 형편 보지 말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큰 꿈을 꾸십시오. 고아를 왕비로 만드신 하나님,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두껍아, 두껍아!

보통 개구리나 두꺼비들은 물가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고, 뒷다리가 ‘숙~’ 앞다리가 ‘숙~’ 하고 자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가지요.

하지만 옴두꺼비는 물가에 자기 알을 낳을 수 없습니다. 옴두꺼비가 새끼일 땐 어찌나 약한지 쉽게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먹성은 또 얼마나 좋은지요. 먹이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라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을 낳은 어미 옴두꺼비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새끼들이 자라기에 가장 안전한 곳, 그러면서 먹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곳, 바로 능구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라면 당연히 몸을 사렸을 뱀에게 오히려 ‘자기를 잡아먹으라!’며 짐짓 기세 싸움을 벌입니다.

왜 하필 천적(天敵)인 능구렁이를 찾아가느냐고요? 자신이 뱀의 뱃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새끼들이 어미 두꺼비의 살을 먹고, 또 능구렁이를 자양분 삼아 성장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측하게 생긴 옴두꺼비를 보고 능구렁이는 본능적으로 그를 꺼려합니다. 게다가 두꺼비엔 독이 있어서 이를 잘못 잡아먹으면 자기 목숨도 위험해지거든요. 하지만 결국 어미 두꺼비를 잡아먹게 되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독을 내뿜으며 달려드는 옴두꺼비를 그냥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옴두꺼비는 능구렁이에게 잡아먹히는 순간, 남겨둔 독을

모두 쏘아 능구렁이를 죽게 만듭니다. 생명의 빛이 다하는 순간까지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동요에서 ‘헌집’은 바로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몸을 던진 어미 옴두꺼비를 의미하고, ‘새집’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라날 새끼 옴두꺼비를 뜻합니다. 자기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뱀의 입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새끼들이 배고파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살을 내어주는 옴두꺼비의 사랑,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처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해주셨습니다. 마치 어미 두꺼비가 새끼 두꺼비들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뱀에게 던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괴흘리며 돌아가신 거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아직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에 말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그 바탕엔, 십자가의 고난과 크신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작게나마 부응하는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바로 전도 말이지요!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2019 JC아카데미 개강

지난 12일, 새로운 마음으로 2019년 JC아카데미가 개강했다. 이 날 강사인 이시대 목사님은 JC아카데미를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시며,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JC아카데미는 지난 해 로마서에 이어 계속해서 신약 강해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날은 고린도전서로 시작하였다. 고린도전·후서는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후서를 통해 교회론 및 공동체가 가져야 할 교훈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이 지나는 항구도시였으며 사도바울이 선교기간 중 1년 반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다. 또한 교인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기도하며 가장 충만했지만 공동체

간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

목사님은 십자가의 도(道:길)란 가난이나 어려움을 당연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고린도교인들이 분파가 나뉘고 싸운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고2:9)으로 예비해 주신다. 때사 인통(人通)해야 신통(神通)함을 잊지 말자!

송현해 기자



죽음의 기로에서

지난달 맹장염이 세 번째 터졌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바로 맹장 제거수술을 하지 않고 먼저 고름을 제거하고, 관찰하면 맹장을 잘라내지 않은 채 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너무 무리한 탓에 또 터진 겁니다. 장기들이 모두 뒹나있어 먼저 고름을 제거하면서 며칠간 장기들이 나아지기를 기다린 후에 드디어 맹장 제거수술을 하는데, 문제는 맹장이 대장에 붙어서 염증이 퍼졌기에 대장도 25cm가량을 잘라냈습니다. 그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혈압이 위험 수위로 내려갔습니다. 5시간 수술 후 2시간 반 회복실에 있는 동안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간호사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수술해놓고 죽었다는 말을 듣겠다.” 그들은 밤 10시가 되었는데 집에 가지 못하고 저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혈압기를 보았습니다. 73/42mmHg,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주님을 부르며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수축기 혈압의 수치가 85mmHg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들이 희망을 갖고 저를 일단 일반 병실로 보냈습니다. 일반 병실에 도착했을 때 다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사단이

제 온몸을 짓눌러 죽이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었지만 호흡을 할 수 없었고, 온몸이 놀리고, 머리도 짓눌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귀신에게 지면 죽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 떠나가!”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서 진통제 주사도 못 맞고 너무 아픈 상태인데도,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습니다. 갑자기 귀신이 떠나간 것을 느꼈고, 나는 신음하며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옆에 와주신 것을 느끼자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그 뒤로 수축기 혈압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거의 90mmHg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틀에 걸쳐 수혈을 받고, 진통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지나간 듯합니다. 나는 계속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고, 점차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 앞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죽음의 기로에서 체험했습니다(요1:5).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국에서 권문선 목사

리더의 자질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 그는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탐험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한 조난을 당했습니다. 부빙에 갇혀 난파된 배를 버리고 497일 만에 그들이 도착한 섬은 안전한 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보트를 타고 1,400km가 넘게 떨어진 사우스조지아 섬으로 구조를 요청하러 가야 했습니다. 이때 새클턴은 자신이 그 위험한 구조대를 인솔할 것을 자청하였고, 그때 다루기 힘들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섬에 남겨진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떠납니다. 모든 위험을 자신이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달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사우스조지아 섬에 도착하여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대원 모두는 구조되었습니다.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긴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희생과 섬김의 아이콘이 된 새클턴 선장의 모습을 지난주일 2부 예배 때 단에서 서신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오후에 태국

집회를 위해 출국하실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3부 예배만 오셔도 되셨을 텐데 그날 주일 아침, 목사님은 이른 2부 예배부터 인도하셨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데우셨습니다.

‘왜 목사님은 해외집회가 있어 비행기를 타셔야하는 그날에도 오히려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셨던 것일까?’ 저는 혼자 질문했고, 그 답을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고 희생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선택을 버리고 목사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말입니다. 그러한 목사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글이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후4:12).

목사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희생을 통로 삼아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합니다. 저도 목사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현승 전도사
coollee0817@naver.com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황종만 장로, 권영화 전도사 부부

우리 교단의 초기 부흥기 시절,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물불 안 가리고 기도와 전도에 열정을 쏟았던 이들이 있다. 지금은 60대를 넘어 70대에 이르는 1기, 2기 여전도사님들이다. 30, 40대에 목사님을 만나 온갖 핍박을 함께 견디며 그 혹독한 시절을 오직 예수에 미쳐 살아온 분들이다. 우리 교단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이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 불같은 열정이 있었다. 태국(Thailand) 치앙라이(Chiang Rai)에서 만난 권영화 전도사를 통해 우리는 그 시절을 환기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었지만 당시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부딪치는 사안은 제사 문제, 그리고 성령을 받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예수에 미쳤으며 믿지 않는 남편에게 받는 엄청난 핍박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오히려 더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황종만 장로이지만 당시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행이라고 느낄 만큼 하루하루 남편에게서 오는 시련은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조장을 맡아 심방이다 전도다 하며 다니다보면 하루해가 어찌 그리 짧은지,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천국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집에 가면 어느 날은 욕이 사발로 쏟아지고, 또 어느 날은 바깥으로 나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심사로 웃이란 웃을 죄다 가위질해서 버려놓기도 했단다.

한번은 목사님 사진을 갖고 싶었는데, 부 목사님이 갖고 있는 것을 졸라 어렵사리 구해서는 성경책 갈피에 끼워놓았단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사단이 나고 말았다. 남편은 성경책 갈피에서 목사님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완전히 쪽지가 돌아,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내 사진 갖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 사진은 뭐냐?”며 그 어렵게 구한 사진을 다 찢어버리고 성경책을 집어던지며 난리를 쳤다고 한다.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껄껄 웃으시더니, “말도 마라. 그때 제사 안 지낸다고 했다가 남편에게 맞아 시퍼렇게 부은 얼굴로 와서 평평 울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지. 또 내 아내 미치게 했으며 이초석이 죽인다고 몰려왔다가 깨져서 지금은 장로가 된 사람들도 허다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자녀들이 엄마의 신앙을 잘 따라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고, 하루하루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남편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 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핍박하던 남편이 없으니 더 신나게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비자갱신 때문에 3개월마다 돌아오는 남편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더욱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는 모습에 부아가 치미더라고요. 아이들과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만큼 조금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예쁘고 그토록 성령 충만했던 큰 딸이 태국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어린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아이는 의식을 잃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었어요. 의사는 이미 가망이 없다고 하더군요. 겨우 호흡만 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생명연장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게 옳지 않았지만 남편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지요. 비행기 안에서 술을 잔뜩 먹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나타난 남편, 그런데 나를 보자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혼란이 말끔히 정리되었다고 한다.

‘아, 내 딸이 남편을 구원하고 갔구나.’ 목사님도, 우리도 이 대목에서는 울컥하며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었다.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에 할 말을 잊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사의 눈물로 찬송하며 딸을 하나님께 보낼 수 있었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장례식도 아주 의연하고 기쁨으로 치렀어요. 나의 그런 모습을 본 남동생은 ‘누나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며 교회로 나오더군요. 내 어여쁜 딸은 그렇게 구원의 사명을 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안겼지요. 딸이 써놓은 일기장에는 날마다 아빠의 구원과 엄마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구절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일기장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지요. 또 교회에 나와 ‘오 예수여’를 부를 때면 하늘로부터 딸이 내려오는 환상을 본다며 더 교회로 가는 것 같았어요.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보통 같으면 ‘예수에 미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딸마저 죽었다’고 더 미쳐 돌아갔을 게 뻔한데,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온다는 하

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후 권 전도사는 남편과 태국으로 들어와 치앙라이의 아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도 세우고, 목사님을 모셔 전도집회도 가졌다. 그 속 썩이던 남편이 변화되어 유창한 태국어로 동역해주는 오늘, 하나님은 미리 남편을 태국에서 준비시켰음을 깨닫는다. 남편은 젊고 팔팔하던 시절이 행복했다고 하겠지만, 권 전도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남편 황종만 장로와 함께 사역하며 같이 하는 시간들이 너무도 귀하단다.

목사님은 ‘지금 황 장로가 권 전도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먼저 낙원으로 간 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요, 이는 그 딸의 상’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여인의 기도가, 변함없는 믿음이, 온갖 환란과 핍박을 견디며 달려온 신앙이 빚어낸 작품이었다. 남편을 믿음의 장로요, 사역자로 우뚝 세웠을 뿐 아니라 태국에 2개의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두 번이나 초청하여 전도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복음의 물꼬가 태국 뿐 아니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터져나갈 기세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속이지 않는다.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 교단에는 이런 눈물의 간증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월들을 목사님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신앙의 정수(精髓)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춘계산상집회

2019. 4. 1(월) ~ 4(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533-9191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차이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은 주변과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개별화된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할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등 여러 형태의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고, 서로 공감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참된 인간으로서의 총명한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교회는 다양한 인종, 계급, 성별은 물론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나 사물에 관한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이렇게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평화롭게 지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차이가 크게 나면 날수록 하나 되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루어 가까워졌으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 안에서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 ‘우리’에 속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곤 한다. ‘우리’라는 틀 안에 들어온 이들과는 친절, 공감, 배려, 신뢰, 협력 등을 하면서 공동체를 지속시키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드러나는 서로의 차이로 인해 ‘우리’라는 틀을 깨고 서로 등을 돌려 모르는 이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이처럼 ‘차이’로 생긴 갈등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고집하기 때

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선되는 것이 아닌 ‘나의 의’와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세우며 싸우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도 내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 벽이 만들어지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웬은 “공동체란 모든 것,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죄의 위험과 세상의 권력 아래 추고, 서럽고, 어려울 때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

드셨고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공동체로 승화시켜갈 수 있는 해답까지 알려주셨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히10:24), 또한 ‘서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고전1:10)이다. 이는 나의 지식이나 윤리적 견해를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식과 입장에 비추어 스스로를 상대화하는 것, 즉 ‘역지사지(易地思之)’하라는 것이리라. ‘차이’라는 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름’일 뿐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황에 맞춰 서로를 감싸안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권정미 집사

jmgood77@gmail.com